

# '신몽유도원도'...석상에 붙여넣은 감정의 숨결

2015-09-05 윤현숙 기자





높은 천장 아래 우뚝 선 사람의 형상.

높이 3미터, 무게 2.5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조각상들은 영국의 '스톤헨지'를 떠올리게 합니다.

2년 전 미국 뉴욕 맨해튼 록펠러센터 앞에 설치돼 화제를 모았던 조각의 연작입니다.

무생물인 석상에 참견쟁이와 변태, 관찰자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이름을 붙였습니다.

작가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.

[우고 론디노네, 작가]

"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석하게 한 첫 번째 사조였습니다. 전시회의 명칭이 감정들인데, 각각의 작품의 이름을 인간의 감정에서 따왔습니다."

최소한의 가공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돌의 형태를 살렸고, 관람객이 손으로 만지며 작품과 직접 교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.

가장 원시적인 풍경이 가장 현대적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.

---

URL : [http://www.ytn.co.kr/search/search\\_view.php?s\\_mcd=0106&key=201509050453313841](http://www.ytn.co.kr/search/search_view.php?s_mcd=0106&key=201509050453313841)